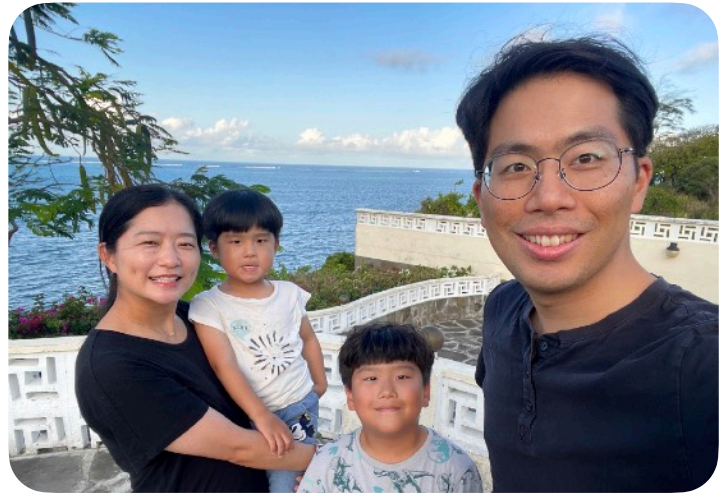




그레이스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3)



가족 사진: 케냐, 몸바사 바닷가를 뒤로하고

샬롬! 로고스 호프에서 신 선교사 가정 인사드립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10월 중순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사랑하는 동역자 분들의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며 로고스 호프에서 소식 전합니다.

케냐에 도착하여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난 편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선교사들의 훈련과 부서배치가 끝나고 새롭게 정해진 부서에서 새로운 선교사들도 힘차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케냐 몸바사에서 승선한
신임 선교사들 단체 사진



신임 선교사들 인사 배치를 마치고
가진 인사부 동물 농장 나들이



동물 농장 나들이 중 챙겨온 음식을 빼앗아
먹은 타조와 대치 중인 신 선교사

새로운 80여명 선교사들의 부서배치와 방배치가 잘 끝나고 나서야 신 선교사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 선교사는 일상으로 돌아와 여러 인사 관련 회의들, 정기인사 포럼, 각 부서장들과의 정기미팅, 독일 배 본부와의 인사회의 등 이외에도, 승선한 선교사들의 60여개의 본국 사무실과 연락하며 인사 관련 행정들을 처리합니다. 수 많은 이메일과 서류들 그리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개인 상담들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 선교사는 새로운 선교사들을 배 가족모임 **Ship family**에 배치하고 식탁 배치, 가족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도 정리하는 일 등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Shin's Ships family, 신 선교사 배 가족
캐빈에서 기도회 후에 찍은 단체 사진



배 가족과 선상 주일 예배 후에
나눠먹을 쿠키들을 만들며



새로운 한인 선교사들을 환영하기 위해
요리한 떡볶이를 함께 나누며

방학이어서 주안이에게는 한글공부와 학습지를 하게 하여 그동안 뒤로했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안이는 방학동안 형과의 시간이 늘면서 한국말도 더 늘고 먹는 것도 좀 늘어 기도부쩍 자랐습니다. 긴 방학동안 아이들과 계속해서 배안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처음보다 많이 적응하여 답답한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 생각보다 잘 지낼 수 있었고, 형제간의 우애도 자라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지는 시간들이 되어 감사한 방학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훈련과 부서배치가 끝나고 신 선교사도 시간을 내어 휴가를 가지고 저희는 항구 근처 밖에 숙소를 잡아 아이들과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가 기간동안 수영도 실컷하고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동물, 자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재충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케냐 몸바사 **Mombasa** 는 항구 도시로 수도 나이로비 **Nairobi** 의 사람들은 휴가를 내어 이곳으로 오는 아름답고 날씨도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동안도 한국여름보다 덜 덥고 그늘에 가면 바람 때문에 시원하여 해가 진 후로는 선선한 날씨여서 아프리카라고 모두 다 뜨겁지는 않구나를 새삼 느끼며 몸바사에서의 시간을 감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40일 정도의 긴 시간을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소규모의 팀들이 지역근처 믿는 사람들이나 선교사의 사역에 참여하여 학교와 교회 등을 방문하며 복음과 영어 등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배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하여 여러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몸바사 항을 뒤로하고
사진 찍은 주안, 이안 형제



그림 그리기와 글씨 연습을 하고 있는 형제



“아빠 우리 특특 타고” 이젠 삼륜 오토바이
특특을 타는 것이 익숙한 가족



이곳에 와서 처음 놀랐던 것은 몸바사 지역은 무슬림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오만 제국이었을 당시 이슬람이 들어왔고, 그 이후 인도계 무슬림들도 많이 들어와 지금까지 이곳에 터를 이루어 살고 있고, 중동 사람들도 이곳에 와 사업을 하는 등 히잡을 쓰고 터번을 쓴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몸바사 인근 지역 어린이 사역을 하며



선상 서점을 방문한 히잡을 쓴 여학생



무슬림 젊은 남성들을 위한 컨퍼런스 마치고

몸바사를 떠나면서 선내 선교사들이 모여 간증의 시간을 가지면서 선상 서점에 173,000 여명의 방문객이 있었고 수많은 성경 배포, 107명의 현지인 자원봉사자들이 선상 서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탕자이야기를 통해 영접기도 한 자들이 70여명이 넘었고 이외에도 선내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이번 항구에서 선내 선교사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배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을 주로 하여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기쁜 소식을 함께 듣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현지 믿는자들과 교회와 잘 연결되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1. 케냐 몸바사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열매 맺기를
2. 현재 항구인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구에서의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 저희가 새롭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하고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안이 이안이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 | |
|----------------------|-------------------|
|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 10월 5일 ~ 10월 23일 |
| 마다가스카르, 안치라나나 | 10월 26일 ~ 11월 14일 |
| 마다가스카르, 토아마시나 | 11월 16일 ~ 12월 13일 |



QR코드 링크



카카오톡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